

1. 도로시와 펠릭스는 어떠했는가? What about Dorothy and Felix?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사도행전 13-15 장에 보면 한 선교사가 첫 번 사역기간인데도 얼마 안되어 사역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터, 선교사들에게는 멤버케어가 필요했다. 남아있던 두 선교사가 2 차 사역기간에 함께 선교지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멤버케어의 필요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 장에서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가족의 첫 선교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읽는 동안 가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 멤버케어에 관한 구체적 필요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즉 문제방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고,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화공의 아내 도로시
목사 사모 도로시
목사 아들 펠릭스(PK)
선교지로의 이동: 1793 년
‘현대선교의 아버지’의 아내 도로시
선교사 아들 펠릭스(MK 또는 TCK)
선교사 펠릭스
도로시와 펠릭스는 어떠했는가?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로의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으세요.

선교사 멤버케어를 소개하는 한가지 좋은 방법은 바로 현대 선교운동이 시작된 200 년 이상 전에 타문화권에서 사역했던 가족의 기록이 잘 되어있는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다. 도로시(Dorothy)는 1756 년에 영국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피딩턴(Piddington) 마을의 작은 시골 교회에 출석했다.

제화공의 아내 도로시 Dorothy as the Wife of a Shoemaker

도로시는 그 마을의 제화공 밑에서 견습생이었던 윌리엄을 교회에서 만났다. 그 당시 다른 젊은 여자들처럼 도로시는 문맹이었으나; 윌리엄은 독서를 꾸준히 했고, 글을 많이 쓰는 작가이기도 했다. 1781 년 6 월 10 일 이들이 결혼했을 때 미국의 13 개 식민지와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2 년 반 후에 제화공이 죽자 윌리엄과 도로시는 구둣방 사업을 물려받았고 그들의 결혼은 좋은 출발같이 보였다. 이들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두 젊은 크리스찬이었고, 같은 교회를 출석했으며, 결혼하여 자신의 마을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목사 사모 도로시 Dorothy as the Wife of a Pastor

하지만 윌리엄이 마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 이후 몇 년 만에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4년 후(1785) 이들은 윌리엄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몰튼이라는 마을로 이사갔다. 다시 4년 후(1789) 레스터(Leicester)로 이사했다. 윌리엄은 거기서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제화공으로 일했으며, 두 주에 7번씩 설교를 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가족은 재정적으로 쪼들렸고, 거의 굶기 직전까지 갔다. 이 기간 동안 6명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들 중 둘은 두 살에 죽었다. 이 시점까지 이들은 '전형적인' 쪼들리는 목사 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은 해가 지나면서 '이교도' 국가에 대한 부담감을 점점 더 갖게 되었다. 1792년에 세계 다른 국가들에 있는 '이교도'들을 개종시킬 크리스찬의 의무에 대한 팸플릿을 발간했다. 그 해 후반에는 새로운 선교사 파송 기관을 조직하는데 중심 인물이 되었다. 곧 윌리엄은 선교사로 인도에 가고자 자원했고, 도로시와 자녀들과 같이 가고 싶어했다.

목사 아들(PK) 펠릭스 Felix as a Preacher's Kid (PK)

펠릭스는 윌리엄이 목사 안수를 받은 곳, 몰튼으로 이사하던 1785년에 태어났다. 1788년에 윌리엄과 도로시는 또 다른 아들(윌리엄)을 낳았고, 1789년에 아들을 또 낳았다(피터).

윌리엄 캐리 가족은 1789년에 레스터로 이사 가서 둘째 딸인 루시를 가졌으나, 루시는 두 살에 죽었다(첫째 딸 앤도 1784년에 두 살의 나이로 죽었다). 펠릭스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누이들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했다.

윌리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목사 봉급을 보충했고, 펠릭스는 윌리엄의 학생 중 하나였다. 설교, 가르치는 일, 선교에 대해 늘어가는 흥미 가운데서 윌리엄의 업무 스케줄은 매우 바빴다.

선교지로의 이동: 1793 년 Transition to the Field: 1793

1793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멤버케어 결핍을 증명하는 것들을 뽑아보았다.

- 1월 9일: 윌리엄과 친구 존은 선교기관의 첫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 1월 16일: 도로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앤드류(선교단체 대표)는 친구와 만나서 도로시와 대화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들을 만났을 때 거절의 뜻을 표했다.
- 2월 1일: 프랑스가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 3월 17일: 윌리엄이 영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다.
- 3월 26일: 도로시, 윌리엄, 세 아들(펠릭스, 윌리엄 주니어, 피터)이 서로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들은 언제(혹시 만난다해도) 가족으로 다시 만날지 몰랐다.
- 4월 4일: 윌리엄, 존, 8살의 펠릭스는 인도로 가는 선단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탔으나 전쟁 때문에 화이트 섬에서 6주간 머물러야 했다(도로시는 다른 자녀들과 임신한 몸으로 집에 남아 있었다).
- 5월 3일경: 도로시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야베스(내가 슬픔속에 그를 낳았다는 뜻)라고 했다.
- 5월 22일: 선단을 기다리는 동안 윌리엄과 존은 인도로 가는 덴마크 선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윌리엄은 도로시도 갈 마음이 있는지 알고자 했다.
- 5월 24일: 밤새도록 달려서, 윌리엄, 존, 펠릭스는 아침식사 자리에 도착했다. 아침을 먹으면서 도로시에게 같이 갈 것을 청했으나, 도로시는 거절했다.

- 5월 24일: 더 많은 후원금을 요청하러 가는 길에, 존은 그들이 도로시에게 다시 가서 대화하자고 권했으나, 윌리엄이 거절했다. 존은 혼자 돌아가겠다고 했다. 윌리엄은 존이 가도 괜찮으나, 시간낭비일 것이라고 했다.
- 5월 24일: 존은 도로시와 만나서 말하기를 그녀의 가족은 전부 흩어져서 평생 헤어지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동생도 같이 간다는 조건 아래, 도로시는 인도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 도로시와 윌리엄은 캐더린에게 같이 갈 것을 청했고, 짐을 싸고, 그들의 소유물을 내다 팔고, 가족과 친구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이주를 위한 돈까지 모으는데 24 시간도 안 걸렸다.
- 5월 25일: 3살 난 야베스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도버로 떠났다!
- 5월 30일: 선교 기관을 대표해서, 앤드류는 후원 서신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가족들이 같이 해서 윌리엄은 기뻐합니다. 선교에 대한 반대가 없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윌리엄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 하겠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1억 명의 이교도들 사이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앤드류는 결론짓기를 하나님이 출발을 막으심으로 가족들이 다 따라가게 하셔서 “모든 질책을 막아주셨다”고 했다.

존은 기뻐다. 윌리엄의 마음도 좋았다. 선교기관의 앤드류와 지원자들도 만족했다.

그러나 도로시와 펠릭스는 어떠했을까?

‘현대선교의 아버지’의 아내 도로시

Dorothy as the Wife of the “Father of Modern Missions”

윌리엄 부부는 배를 겨우 탈 수 있나 했다. 이미 2주가 늦은 상태였다. 1793년 6월 13일, 그들은 8살 이하의 아이 4명(이 중 1명은 태어난 지 6주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을 데리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거의 5개월간 중간에 경유한 항구 없이 인도에 1793년 11월 11일에 도착했다.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두 지역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캘커타에 있었는데 도로시와 펠릭스가 이질에 걸렸고(거의 1년간 앓았음), 그 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사는 곳인 반델에서 지냈다.

1794년은 이사, 가족의 죽음, 스트레스의 기간이었다. 1월에는 윌리엄이 너무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마닉톨로에서 살았다. 2월-4월 기간은 순데르분즈라는 곳에 집을 지었는데, 이곳은 그 전 해에 호랑이가 12명을 죽인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개척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5월에 새로운 집을 찾아서 3주간 보트 여행을 했다. 그러나 도로시의 여동생은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면서 남게 되었다. 6-7월에는 말다에 있는 아는 사람 집에서 머물렀고, 윌리엄은 무드나바티에 일하러 다녔다. 8월에 모든 가족들은 윌리엄의 사역지 근처에 머물기 위해서 이사했다. 5살이었던 피터는 그 해 10월에 그 곳에서 죽었다. 다음 목록은 그 이후 12년간 윌리엄의 편지와 일기장을 인용한 내용이다.

- 1795년: “도로시가 어제 속보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도로시는 윌리엄이 그녀에게 “부정하다”고 했다).
- 1796년: “그가 낮이나 밤에 집문 밖으로 나가면, 그녀는 그를 따라나간다. 그리고 가장 침통한 말투로 그가 하인들, 친구들, 토마스 부인과 같이 있는 것을 잡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윌리엄이 매일 밤낮으로 부정한 관계로 죄를 짓는다고 한다.”
- 1797년: “내 삶의 몇몇 시도가 있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추잡함과 충격적인 분노의 표현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 1798 년: “도로시는 미칠 정도로 비참하고, 가족들도 자주 그렇게 만들고 있다.”
- 1799 년: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혼란스런 시간은 일찍이 없었다.”
- 1800 년: “도로시는 완전 미쳤다.”
- 1801 년: “도로시는 오늘 밤 지쳐서 잠들 때까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계속 저주를 뿜어냈다.”
- 1802 년: “도로시는 미쳐 날뛰고, 계속 간혀있어야 한다.”
- 1803 년: “도로시는 예전처럼 계속 좋지 않다.”
- 1804 년: “도로시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 1805 년: “그녀의 정신 이상이 더 심해지고, 뭔가 불행한 기운이 그녀를 계속 분노하거나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 1806 년: “불쌍한 도로시는 더 나빠져가고 있다. 그녀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이다.”
- 1807 년: “불쌍한 내 아내는 심리적 저능 상태로 우울하게 있을 뿐이다.”

더 많은 것들이 제임스 벡(James Beck)의 「도로시 캐리」(베이커 북스 발행, 1992)에 나와있다.

선교사 자녀(MK 또는 TCK) 펠릭스 Felix as a Missionary Kid (MK or TCK)

1793 년 11 월 11 일 캘커타에 도착한지 며칠 후 펠릭스는 이질에 걸려 수 개월동안 앓게 되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닌 후 1794 년 8 월 4 일 무드나바티에 도착할 때까지도 펠릭스는 여전히 이질을 앓고 있었고, 동생 피터는 2 주간 병을 앓다가 1794 년 10 월 11 일에 사망했다. 윌리엄은 관을 만들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피터의 시신을 운구할 사람도 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힌두교와 무슬림 교인들은 이러한 일을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부부는 7~8 마일 내에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마침내 ‘가장 낮은 계급’ 출신 두 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은 도로시의 정신병이 발병하고, 엄마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아빠가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놓여 있는 여러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 1797: 윌리엄: “계속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정말 충격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으며 아빠를 증오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앞에 내 귀한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롭다.”
- 1798: 윌리엄: “불쌍한 C 씨(도로시)가 미치광이가 되고, 때로는 우리 가족 모두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비참하기만 하다.”
- 1798: 윌리엄: “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
- 1799: 출판사의 윌리엄 워드(Printer William Ward)는 번역물을 출력하기 위해 펠릭스를 조수로 데려갔고, 펠릭스와 그의 동생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만났다.
- 1800: 윌리엄 워드: “도로시가 책상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도로시는 제가 아이들을 구타한다는 근거없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도 가능한 모든 욕설을 퍼부었죠.”
- 1802: 조수아 마쉬먼(Joshua Marshman)은 펠릭스와 만났을 때에 대해서 쓰면서 “... 큰 두 아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죠; 그들 마음에 고집과 아집이 깊이 뿌리 박혀있었거든요.”
- 그 후 몇 년 동안 윌리엄 워드는 펠릭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 펠릭스 Felix as a Missionary

- 1807: 펠릭스(21 세)가 버마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 1808: 인도를 방문하던 중 펠릭스의 아내가 사망했다. 윌리엄은 세 자녀를 돌봤고, 펠릭스로 하여금 선교사로 버마에 남을 것을 권고했다.

- 1809: 윌리엄: “당신에게(선교기관) 편지를 썼던 이유는 내 아들 펠릭스의 배우자 감으로 젊은 사람을 보내줄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 1811: 펠릭스는 재혼했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두 자녀를 낳았다. 선박사고로 세 명 모두가 사망했다.
- 1814: 윌리엄: “침묵으로 펠릭스를 애도하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는 것조차 두렵다.”
- 1815: 윌리엄: “그는 선교사에서 대사가 되었다.
- 1816: 윌리엄: “펠릭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질 듯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길.”
- 1816: 윌리엄: “펠릭스에게 엄청난 낭비벽이 생겼다.”
- 1817: 윌리엄: “펠릭스의 낭비로 내가 가진 것 모두를 탕진했다.”
- 펠릭스는 이후 두 번 더 재혼했고 네 번째 부인은 그보다 오래 살았다.
- 1822: 펠릭스는 콜레라나 고열로 사망했다(36 세).

도로시아와 펠릭스는 어떠했는가? What about Dorothy and Felix?

인도에서 거주할 때 윌리엄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당시에 유럽인들과 거의 연락할 수 없었다. 첫 7년 동안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개종한 경우는 있었지만, 인도인 가운데에는 단 한 명도 개종한 사람이 없었다. 때로 윌리엄 가족은 강의 범람, 호랑이, 자칼, 그 외의 것들에 의해 위험에 빠질 때도 있었다. 여러 질병에 계속 시달리기도 했다. 예컨대, 이질, 말라리아, 기타 기생충 감염 등에 걸렸다. 실제로 여러 차례 죽을 거라 생각했다.

1807년 12월 12일 윌리엄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내 아내를 데려가신 것이 기뻐다. 아내는 지난 12년 동안 끔찍한 착란 상태에 있었다...” 영국에서 제화공의 아내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도로시아는 인도에서 불행한 14년을 보낸 뒤 5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도로시아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널리 칭송 받는 윌리엄 캐리의 아내였다. 그 누구도 윌리엄 캐리의 공헌, 헌신, 영향력, 기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지만, 도로시아는 어떠했는가? 이들의 부부관계는 어떠했는가?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그 이후의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 선교사 부부의 첫 아이인 펠릭스는 어떠했는가? 윌리엄은 이런 비극적 결말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선교 기관들은 이들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 있는가?

어떤 멤버케어가 필요한가?

멤버케어에 있어 어떠한 시도들이 진행 중인가?

윌리엄은 어떠한가? 그가 겪고 있는 일을 상상해보라.

선교사 멤버 케어에 관해서는 앞으로 나올 장에서 여러 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